



[EAI 워킹페이퍼] 한일관계 세대분석\_역사

## 청년세대(MZ세대)와 일본군‘위안부’문제

윤석정  
국립외교원

### I. 들어가며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직후부터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두고 일본의 아베 정부와 극심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3년 여간 정상 회담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에 위안부 합의를 맺었지만, 합의의 내용과 체결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현재까지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한국의 2030 청년 세대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이른바 ‘MZ세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자료는 동아시아연구원(EAI)가 실시한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조사’(2013-2019)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조사 항목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한국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청년은 국가 건설의 주역, 민주화 투사,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로서 자신들의 새로움을 바탕으로 미래를 앞서 구현하는 존재였다.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청년상(像)이라 할 수 있다(주은우, 2004). 이와 반대로 한국의 청년을 무한 경쟁이라는 사회의 외부 압력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파악하기도 한다(김홍중 2015).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청년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청년 담론으로서 밀레니얼 세대가 주목을 받는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가 일상화된 생활 속에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금융 위기를 겪은 세대를 말한다. 또한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칭하는 담론으로 Z세대가 있다. 이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강한 개인주의 성향과 진보적인 사회인식 등 이전의 세대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 사회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청년 세대들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전개될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일관계를 다루는 본 연구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시야에 두는 것 또한 같은 이유이다. 한국의 20, 30대들이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인들의 대일인식 현황을 알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향후 한국 사회의 주역이 될 세대들의 대일인식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조망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EAI가 실시한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조사’(2013-2019)의 일본군‘위안부’문제 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 MZ세대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한국인의 대일 정체성을 고려하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MZ세대들의 생각 또한 한국 사회의 다른 세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한편 MZ세대만의 성향을 감안하면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다른 세대들과 구분되는 이들 세대만의 특징이 존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한다. 첫째, MZ세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 갈등 속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5년의 위안부 합의 이후에는 절차적 공정성에 입각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MZ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들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MZ세대들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과 문제에 대한 관심의 지속성 측면에서 다른 세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MZ세대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Z세대는 가장 강력하게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한수출규제 국면에서 다른 세대들은 무역 분쟁 해결을 우선시하는 반면 MZ세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시하는 등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지닌다. II장에서는 연령효과(aging effect),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 기간 효과(period effect)를 중심으로 세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조사 항목 중에 MZ세대에 해당하는 19-29세, 30-39세 항목의 결과를 분석한다. 2013-2015년까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 갈등에 대해 밀레니얼 세대인 19-29세들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밝힌다.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된 위안부 합의 관련 조사 항목에서 19-29세, 30-39세들의 답변을 분석하여, 합의에 대한 MZ세대의 입장을 고찰한다.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문헌 분석을 병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온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한일 역사문제에 시사하는 점을 언급하겠다.

## II. 세대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의 MZ세대

세대는 한 사회에서 보편적 공통점을 가진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성장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 속에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이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만하임(Mannheim, Karl)은 세대 사회학의 관점에서 세대를 계급과 마찬가지로 사회 변동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로 규정하였다. 만하임의 세대 개념에 의하면,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받아 특정 의식을 공유하는 세대가 존재하며, 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카를 만하임 2013).

세대를 비롯하여 연령에 따른 정치적 성향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연령효과, 코호트 효과, 기간 효과가 있다. 연령 효과란 개인과 세대가 연령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령이 높아지고 생활의 안정되면 정치성향이 보수적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 코호트 효과는 각각의 특정 세대가 겪은 고유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들이 그 세대 특유의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른바 동년배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베트남 전쟁 세대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간 효과란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어떤 특정 시기에 연령과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성향을 가지도록 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들이라 하겠다. 세대 간에 정치적 성향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연령 효과, 코호트 효과, 기간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박영득, 이재묵 2016, 34).

MZ세대는 한일 역사문제의 중요 현안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위의 이론적 검토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동아시아연구원 여론 조사의 일본군‘위안부’문제 조사 항목에서 19-29세, 30-39세들의 답변을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MZ세대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MZ세대의 조사결과를 다른 연령대와 비교 분석한다. 이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기간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겪으면서 일본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의 역사문제는 모든 세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대일 역사문제의 상징적인 현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MZ세대의 입장 또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입장과 유사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MZ세대의 조사 결과에서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경향이 발견된다면 이 부분은 MZ세대의 코호트 효과로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MZ세대가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점으로서 많은 연구들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성향으로 ‘공정함’의 추구를 지적한다. 이들 세대는 신자유주의와 양극화와 경쟁 시스템 속에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 배경 속에 이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한 룰이다. 무한 경쟁이 일상화된 능력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규칙과 절차는 합리성과 정당성의 거점이기 때문이다(한국일보 2020/02/18). 『90년대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은 ‘정직함’을 20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았다. 90년대생들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완전무결한 정직을 추구하며, 신뢰는 말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절차와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정함을 담보하지 못하는 대안은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임홍택 2018). 이처럼 다른 세대보다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MZ세대의 성향이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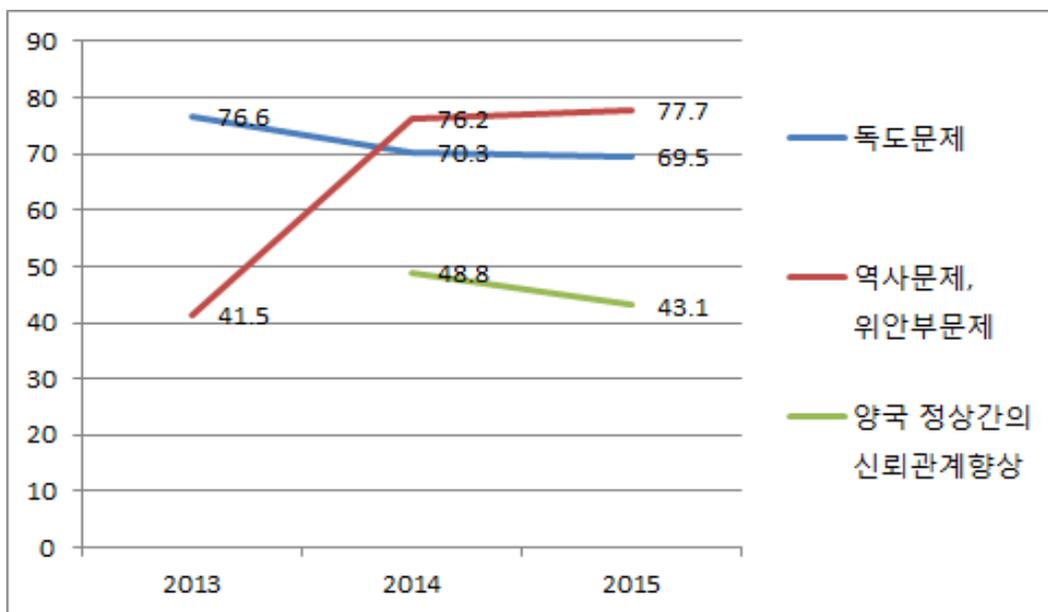
### Ⅲ. 조사 결과

#### 1.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밀레니얼 세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두고 갈등을 거듭하였다. 2013년 3·1절 기념사에서 박근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한일 정상 간에 약 3년에 걸쳐 회담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두고 관계가 악화되었다(손열 2018).

한일 관계의 악화를 배경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림 1>은 “한일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13년에는 독도가 76.6%로 가장 높았는데, 2014년부터 ‘역사문제, 위안부문제’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2013년에 독도 문제가 가장 높게 나온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역사문제, 위안부문제’가 76.2%로 1위를 차지했고, 2015년에도 77.7%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가 한일관계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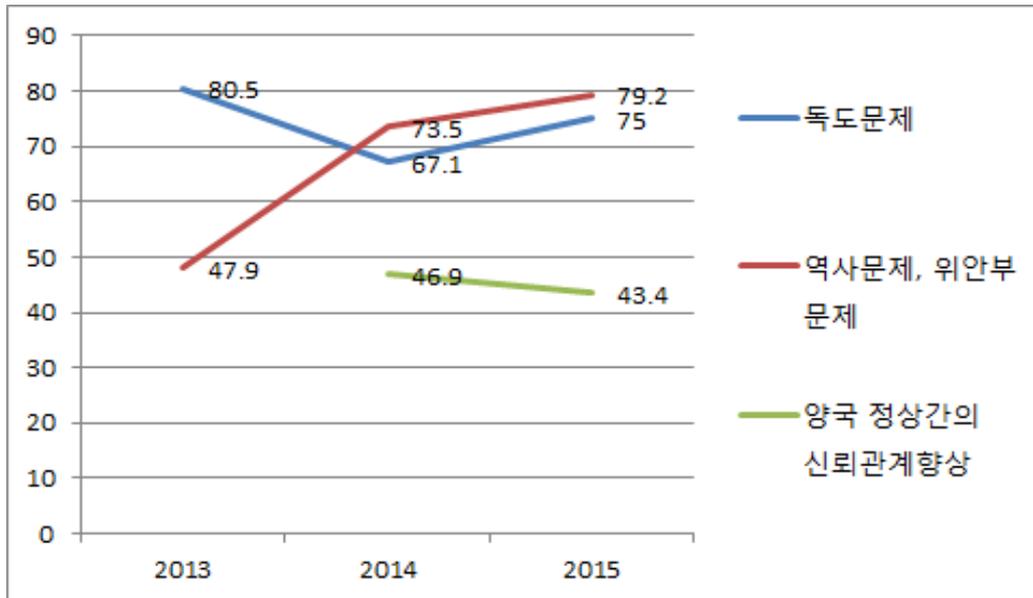
<그림 1> 한일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



밀레니얼 세대 또한 한일의 외교 갈등이 진행되면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드러낸다. <그림 2>는 <그림 1>의 조사 항목에서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하는 19-29세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에는 독도에 이어 2위였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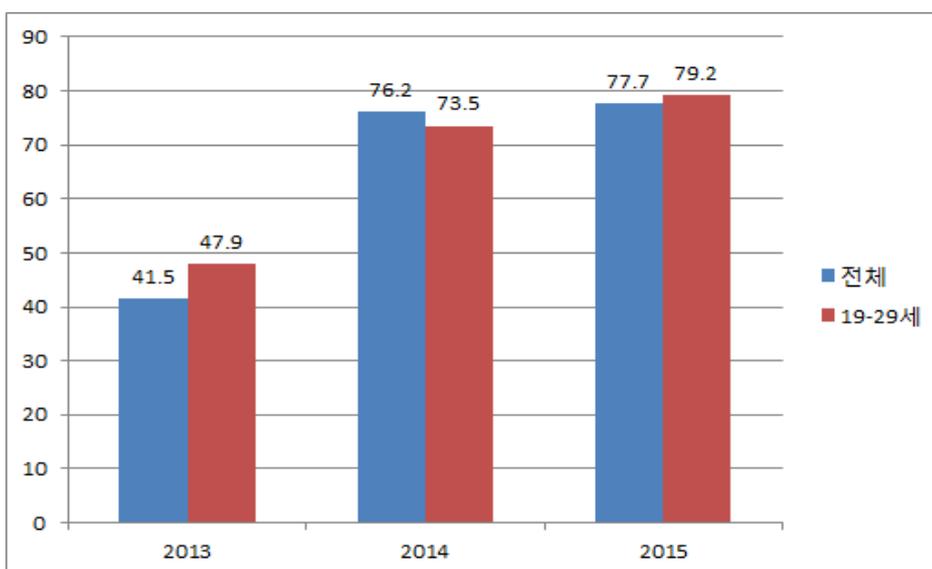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한일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밀레니얼 세대들도 일본군‘위안부’문제로 인한 한일관계의 악화를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깨달은 것이다.

〈그림 2〉 한일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 19-29세



19-29세의 결과를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보자. 〈그림 3〉은 〈그림 1〉, 〈그림 2〉의 ‘역사문제, 위안부문제’ 답변 수치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역사문제, 위안부문제’가 1위를 차지한 2014년, 2015년의 결과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수치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역사문제, 위안부문제’ 답변 19-29세와 전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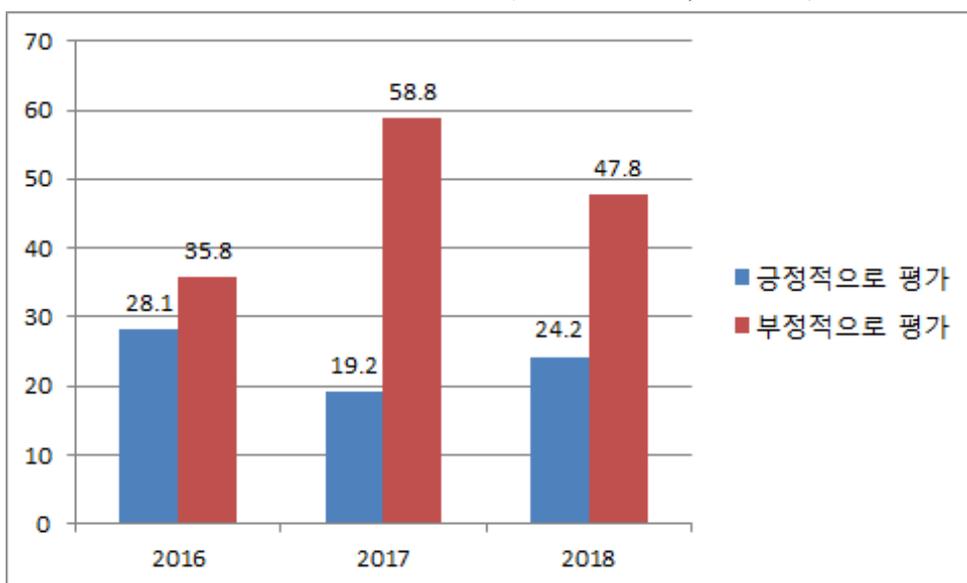
위의 결과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조사 결과에서 다른 연령대와 구분되는 뚜렷한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사를 직접 접하지 않은 세대임에도 이들 세대 또한 한일 간의 역사 갈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교육이나 매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식민지 지배의 피해 실상을 어느 정도 인지한 가운데,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벌어지면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다.

## 2. 위안부 합의와 MZ세대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1)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총리가 사죄 및 반성을 표명하고, 2)일본이 정부 예산 10억엔을 출연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3)이 같은 조치의 착실한 수행을 전제로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피해자 참여를 배제한 채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천명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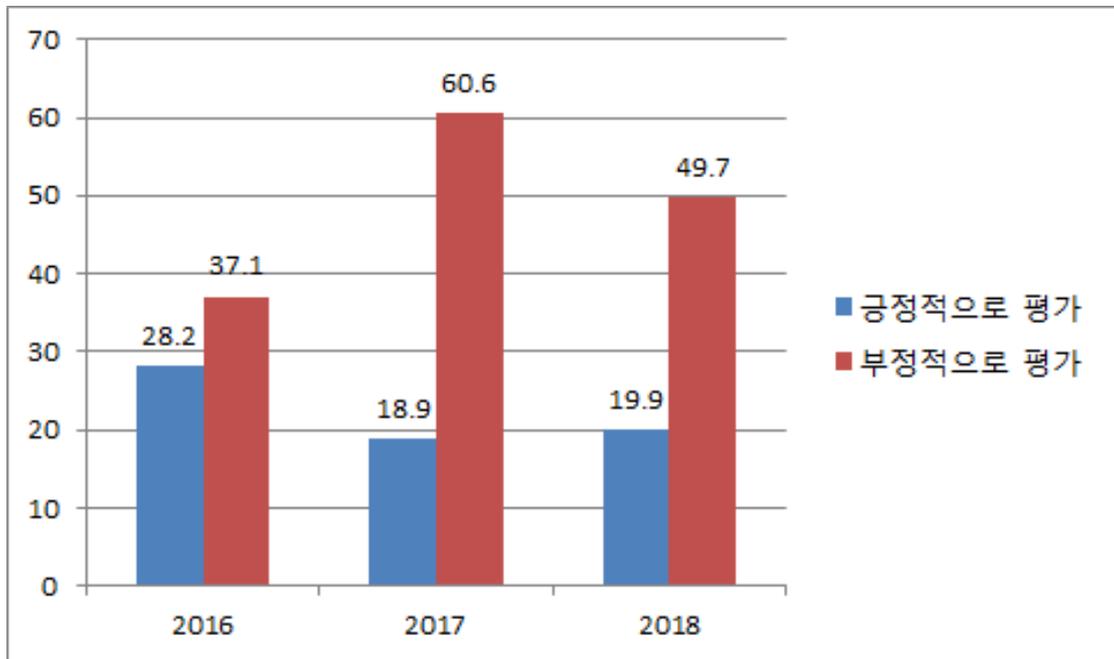
MZ세대에 해당하는 19-29세, 30-39세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림 4>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조사 항목에서 19세-29세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19-29세들이 합의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첫해인 2016년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35.8%로 ‘긍정적으로 평가’의 28.1%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17년에는 부정 평가 58.8%, 긍정 평가는 19.2%가 나왔다. 2016년에 비해 부정 평가가 크게 상승하고 긍정 평가와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특징이다. 2018년에는 부정 평가가 47.8%, 긍정 평가가 24.2%로 양자 간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우세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림 4>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19-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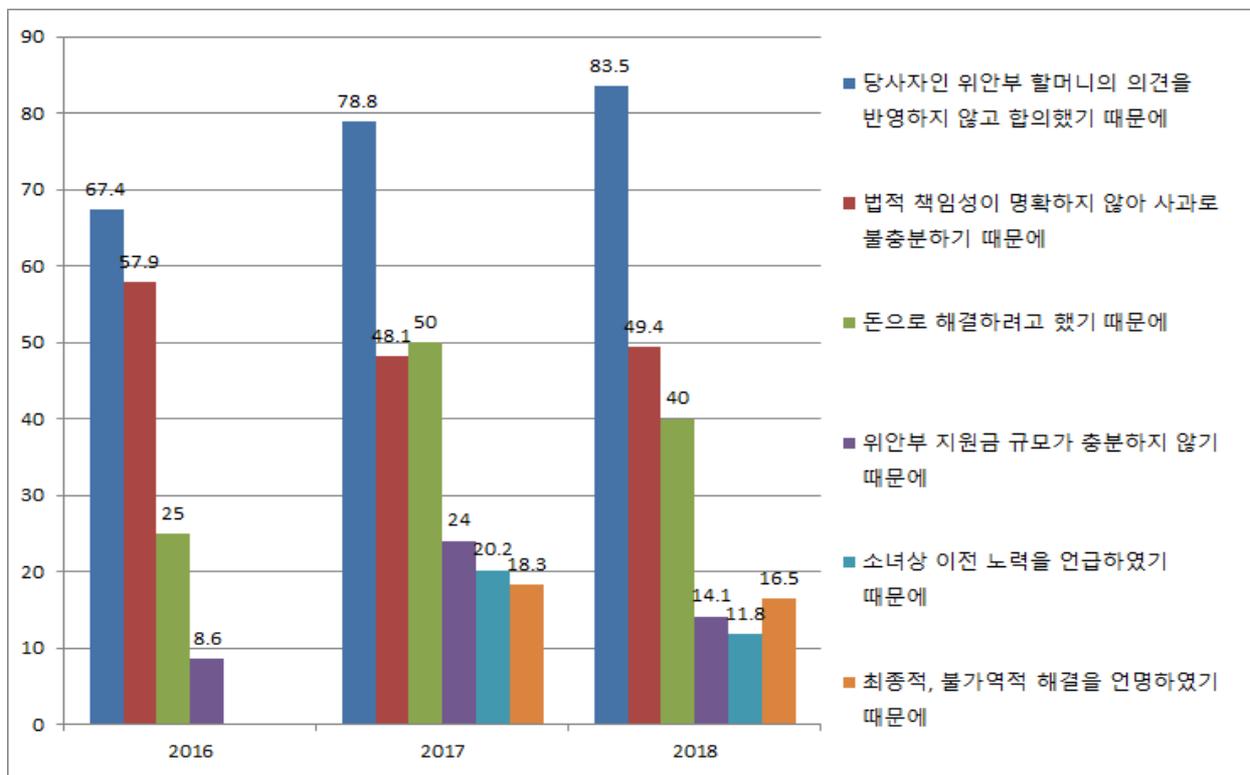


30-39세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 30-39세의 결과를 정리한 <그림 5>를 보면 2016년에 ‘부정적으로 평가’가 37.1%로 ‘긍정적으로 평가’의 28.2% 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낸 이후부터 꾸준히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온다.

<그림 5>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30-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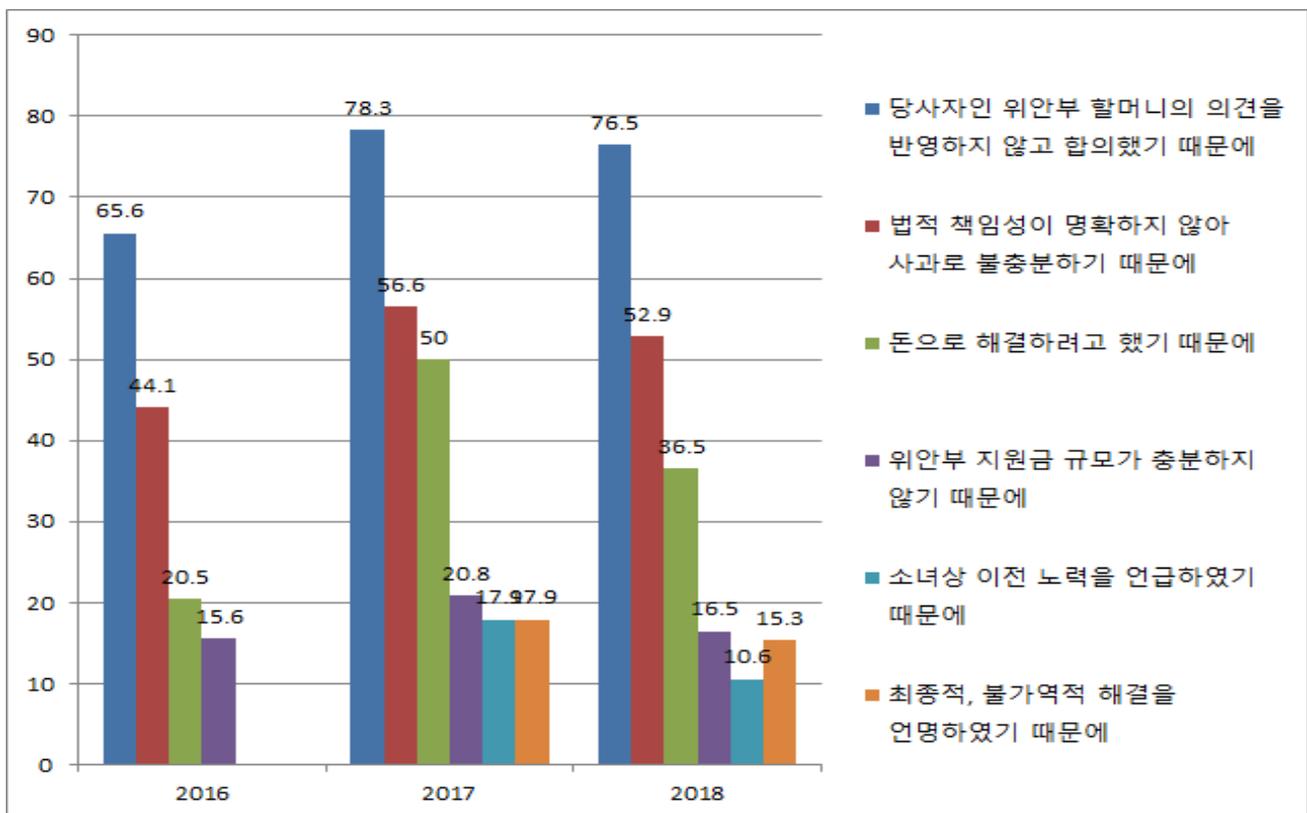
<그림 6> 한일합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19-29세



19-29세, 30-39세들이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는 한국 정부가 교섭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림 6>은 “한일합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 19-29세들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19-29세들은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합의했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답변하였다. 또한 조사가 시작된 2016년에 67.4%, 2017년에 78.8%, 2018년에 83.5%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7>을 보면 30-39세 또한 한국 정부가 대일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합의했기 때문에”가 제일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림 7> 한일합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30-39세



19-29세, 30-39세 외에 다른 연령대의 조사 결과를 보아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다. 모든 연령대에서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합의했기 때문에”가 2016년에 66.3%, 2017년에, 77.7%, 2018년에는 77.0%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법적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아 사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가 2016년에 51.0%, 2017년에 49.6%, 2018년에 51.6%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였다. 답변 항목의 순위와 수치상에서 전 세대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상술한 결과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 원칙으로 얼마나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외교 교섭에 임했는지의 여부가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가치 판단 기준이 변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되돌아보면 1990년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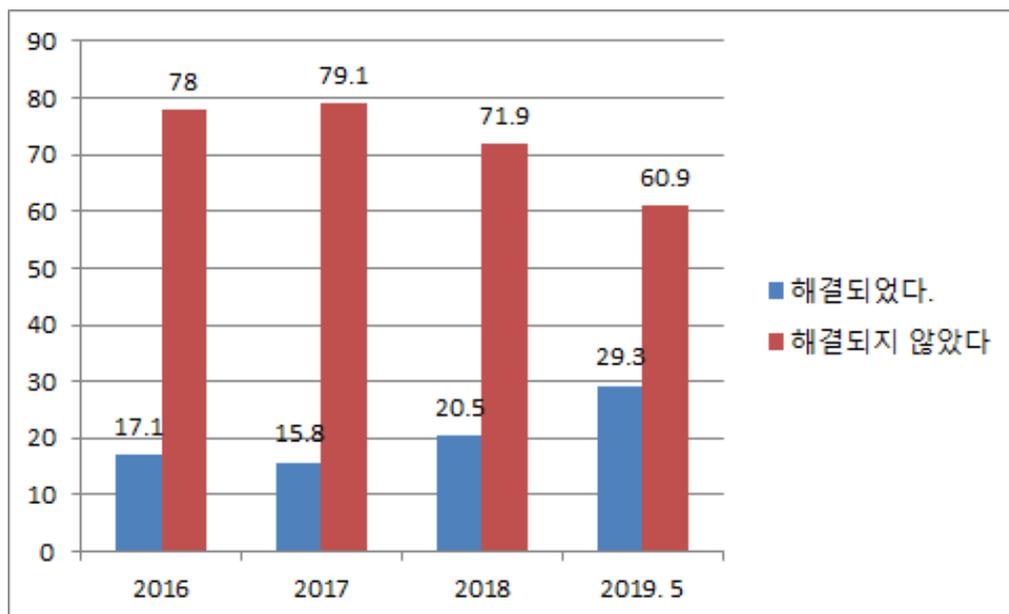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등장한 이후부터 양국은 일본의 ‘도의적 책임론’과 한국의 ‘법적 책임론’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일본의 입장은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의 피해에 관한 법적 청산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원칙적인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론은 “말로만 반성과 사죄를 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최희식 2017). 답변 항목 중 “법적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아 사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또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가 바로 도의적 책임론과 법적 책임론의 구도에 가장 직결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답변은 모든 연령대에서 2위와 3위를 번갈아가며 차지하는 것에 그쳤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19-29세, 30-39세들 평가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즉 일본군‘위안부’문제란 한일 간의 외교문제임과 동시에 민주적 절차의 문제가 되었으며, 기간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 3. MZ세대와 끝나지 않은 일본군‘위안부’문제

아베 정권은 일본군‘위안부’관련 모든 사항이 2015년의 합의로 인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죄의 재확인 등 추가 조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 세대들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정부 간의 합의로 끝난 문제가 아니다. <그림 8>은 한일 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19-29세들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0% 이상이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2019년 5월 조사에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60.9%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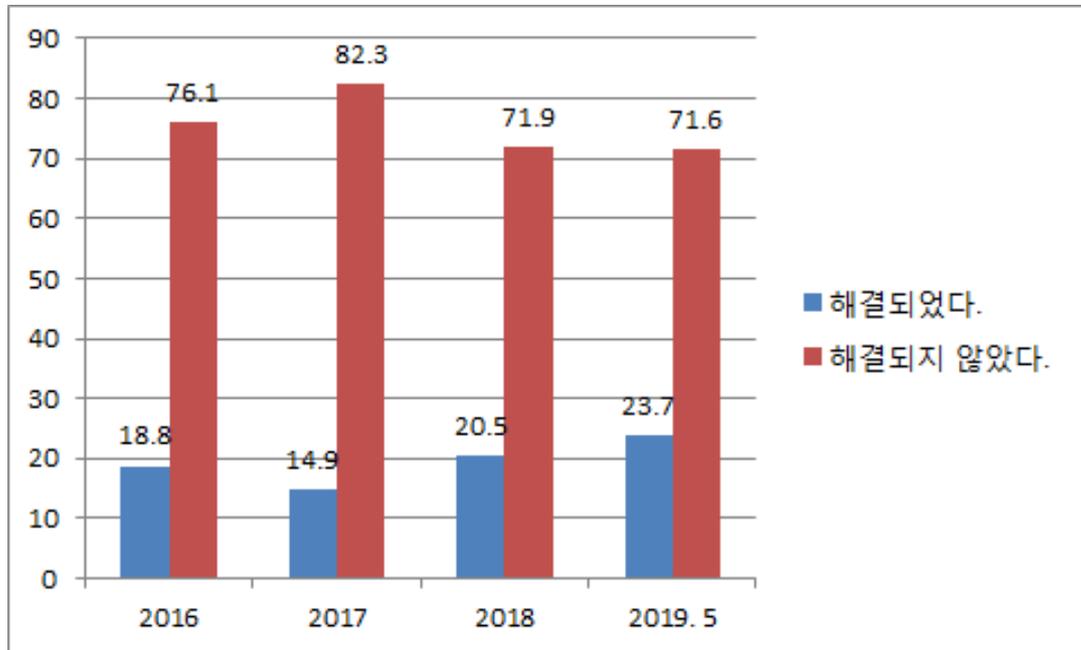
<그림 8> 한일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여부에 대한 입장, 19-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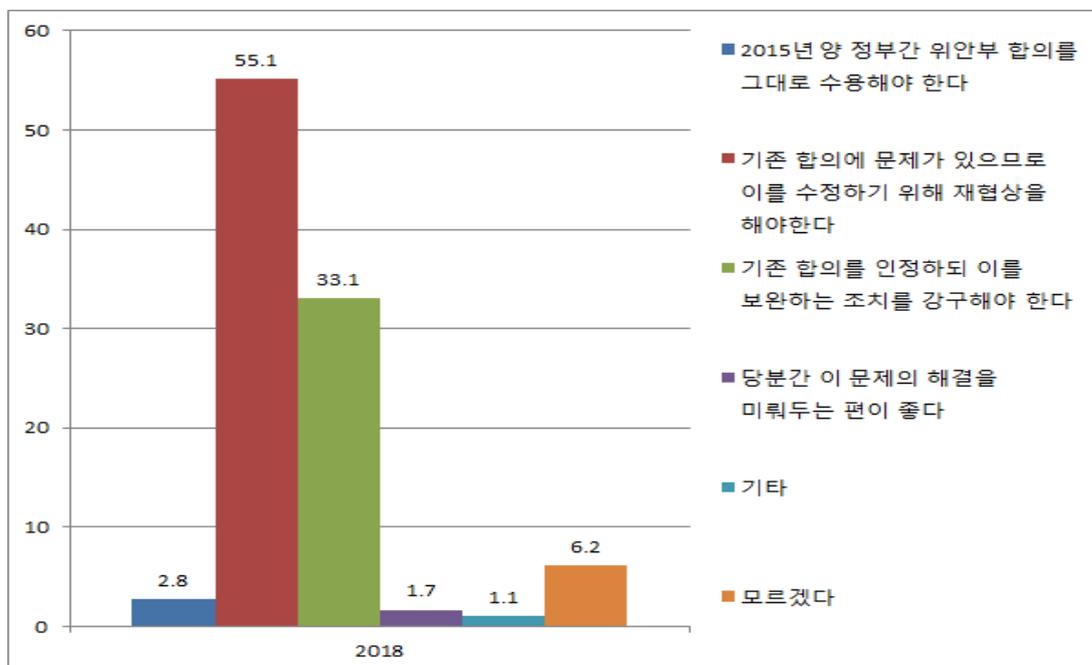
<그림 9>는 같은 질문에 대한 30-39세 답변들을 정리한 것이다. 2016년에 ‘해결되지 않았다’가

76.1%로 ‘해결되었다’의 18.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후 2017년에는 ‘해결되지 않았다’가 82.3%로 상승했다가 2018년, 2019년 5월에는 하락했지만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9〉 한일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여부에 대한 입장, 30-39세



〈그림 10〉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19-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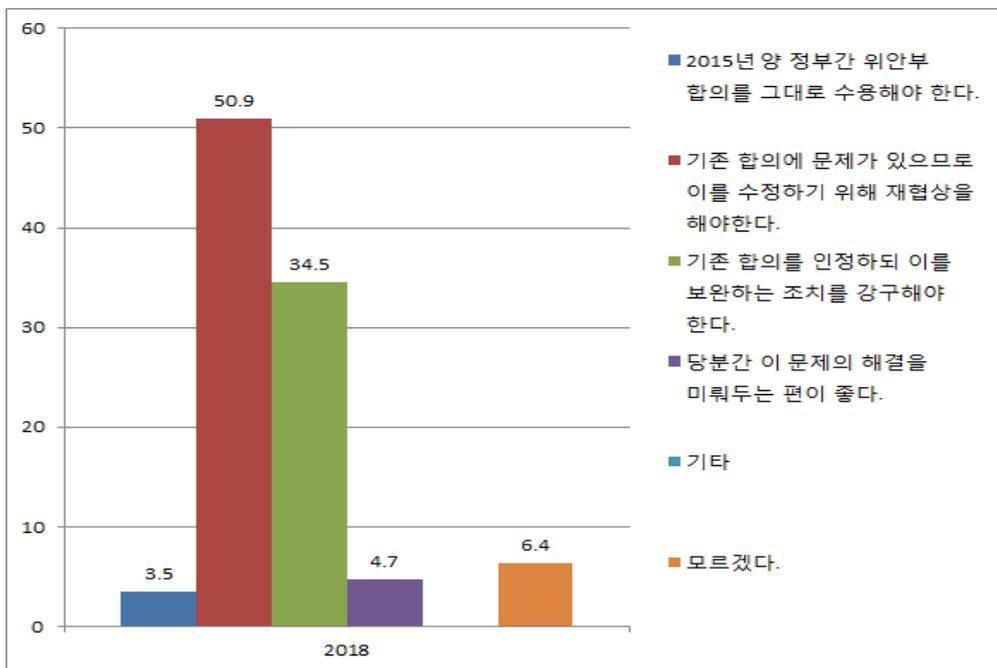


따라서 19-29세, 30-39세들에게 합의 이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림 10〉을 보면 2018년에 실시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사에서 19-29세들의 55.1%가 “기존 합의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해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기존 합의를 인정하되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33.1%가 나왔다.

30-39세 또한 재협상을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그림 11>을 보면 30-39세의 50.9%가 “기존 합의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해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19-29세와 마찬가지로 “기존 합의를 인정하되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답변은 34.5%로 2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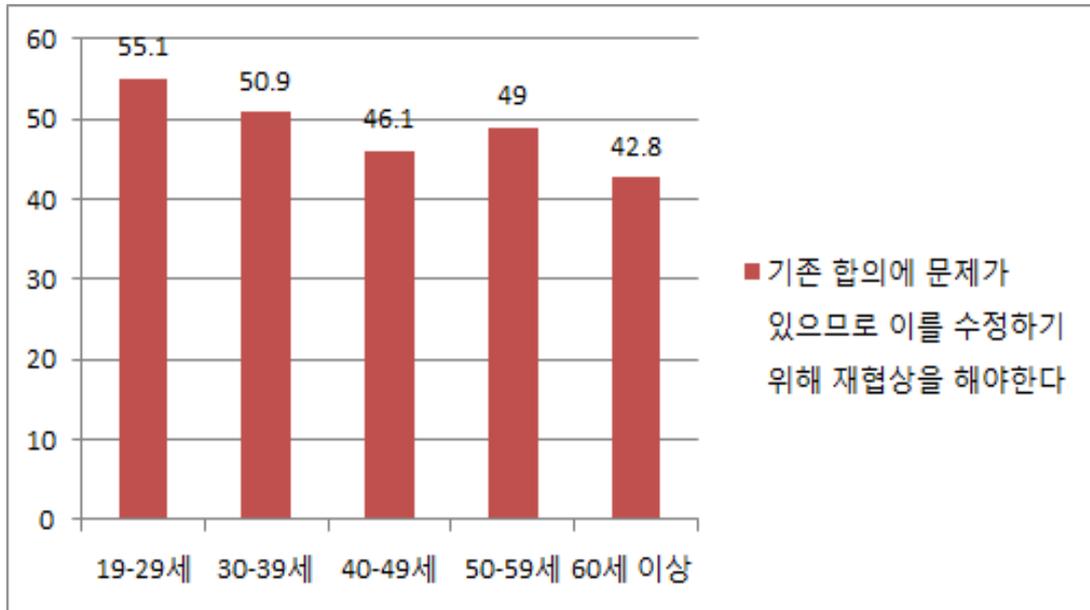
<그림 11>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30-39세



타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19-29세, 30-39세는 “재협상”에 적극적이다. <그림 12>은 재협상을 답변한 비율을 연령대 기준으로 비교 정리한 것인데, 이를 보면 19-29세, 30-39세가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재협상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90년대생에 해당하는 19-29세가 재협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9-29세의 55.1%는 60세 이상의 42.8%와 10%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이 부분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19-29세 세대들이 가지는 코호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 6>의 결과와 종합하자면 19-29세들은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맺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정직함을 담보하지 못하는 합의는 애초에 존재 의의를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가 90년대생의 특징으로 공정함의 추구를 언급하고 있는데, 위안부 합의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2〉“기존 합의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해 재협상을 해야한다”의 연령대 비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9-29세, 30-39세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2019년 10월에 실시한 <표 1>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일 양국이 해야하는 일(1순위)” 조사를 살펴보자. 모든 연령대에서 ‘역사문제 해결(위안부, 강제징용)’을 제일 많이 선택했다. 19-29세에서는 58.9%, 30-39세에서는 60.8%가 나왔는데, 이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40대에 비교했을 때 8-10%, 60-69세에 비하면 17-19% 이상 더 높게 나왔다.

〈표 1〉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일 양국이 해야하는 일(1순위)

	역사문제해결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문제 해결	역사인식 및 교육문 제해결	정부 정상 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향상
19-29세	58.9	10.8	8.2	1.3
30-39세	60.8	5.8	9.9	2.9
40-49세	50.5	7.4	15.2	8.3
50-59세	53.0	5.9	11.9	8.9
60-69세	41.2	9.6	9.6	15.8
70세 이상	51.4	16.2	2.7	13.5

〈표 1〉의 조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이후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문제 해결’ 답변에는 강제징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의 다른 조사를 보면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로 한일 간의 갈등에 빠진 국면에서도 19-29세, 30-39세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표 2>를 보면 40대 이후의 연령대는 “정부의 대일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슈”로 ‘수출규제 등 양국 간 무역분쟁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19-29세의 48.1%, 30-39세의 43.9%가 ‘위안부 등 역사문제 해결’을 선택했다. “정부의 대일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슈”로 ‘위안부 등 역사문제 해결’을 꼽은 것은 19-29세, 30-39세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MZ세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19-29세, 30-39세가 한일 관계의 다양한 국면에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코호트 효과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표 2> 정부의 대일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슈

	대법원 강제동원판결에 따른 해법마련	수출규제 조치 등 양 국간 무역분쟁 해소	위안부 등 역사문제 해결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 회복
19-29세	6.3	18.4	48.1	10.8
30-39세	7.0	24.0	43.9	11.7
40-49세	9.3	33.8	32.8	12.3
50-59세	12.4	32.2	24.8	22.8
60-69세	10.5	32.0	19.7	23.2
70세 이상	24.3	43.2	8.1	10.8

다수의 언론들이 청년 세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민족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Z세대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한류 열풍을 배경으로 일본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첫 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한일 역사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존의 민족주의와는 다른 맥락에 있다는 지적이다(동아일보 2019/09/04).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국면에 상관없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I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조사교차분석표’(2015-2019)을 활용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MZ세대들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밀레니얼 세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을 겪으면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밀레니얼 세대는 과거사를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이들 세대 또한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발생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 MZ세대들은 위안부 합의가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법이 과거사 해결의 원칙으로 정립된 한국 사회의 현황을 반영한다.
- MZ세대는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Z세대에 해당하는 19-29세는 재협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19-29세들은 절차적 공정성을 상실한 정부 간 합의에 가장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MZ세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의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일정책에서 우선시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MZ세대가 한일 관계의 다양한 국면에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것임을 말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사자 간의 소통 및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중요한 원칙으로 정립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최근 일본군‘위안부’문제 시민단체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으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경향신문 2020/06/15).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MZ세대들이 추구하는 공정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동아시아연구원. 2013-2019. “한일상호인식조사 데이터.” <http://eai.or.kr/new/ko/etc/data.asp>(검색일: 2020.8.1)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 회학> 49(1): 179-212.
- 박영득·이재묵. 2016. “세대에 따른 통일과 대북인식 차이 분석: 코호트 분석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치연구> 9(2): 31-67.
- 손열. 2018.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 정체성-안보-경제 넥서스와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국제정치논총> 58(2): 145-177.
- 임흥택. 2018. 《90년생이 온다》. 웨일북.
- 주은우. 2004. “4.19 시대 청년과 오늘의 청년.” <문화과학> 37: 86-117.
- 최희식. 2017.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한국사회에 수용된 것일까?.” 김기정 외. 《한일 관계 50년의 성찰》. 오래.

카를 만하임(이남석 옮김). 2013. 《세대문제》. 책세상.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Jack Shenker. 2019. "This Wave of global protest is being led by the children of financial crash." *The Guardian*.

■ **저자:** 윤석정\_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일본 게이오(慶應)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일관계와 일본 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1965년 체제와 아베 정권의 보통의 한일관계 만들기: 12·28 합의, 강제동원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과 일본의 정당정치: 7·1 각의결정 과정을 둘러싼 정당정치 동학" <국제·지역연구> (공저, 2019), "1990년대의 한일관계와 한일공동선언: 한일관계의 구조변동에 의한 탈냉전기 협력과 제도화 시도" <일본학보> (2019) 등이 있다.

■ **기획 및 편집:** 오승희 EAI 수석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2) seungheeh@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8월 11일

[EAI 워킹페이퍼] 한일관계 세대분석\_역사. 청년세대(MZ세대)와 일본군'위안부'문제

979-11-6617-002-7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